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3)	2	(5)	3	(2)	4	(4)	5	(1)
6	(3)	7	(5)	8	(3)	9	(4)	10	(3)
11	(4)	12	(2)	13	(2)	14	(4)	15	(1)
16	(5)	17	(3)	18	(4)	19	(2)	20	(5)
21	(5)	22	(5)	23	(5)	24	(4)	25	(4)
26	(2)	27	(1)	28	(4)	29	(3)	30	(3)
31	(3)	32	(1)	33	(5)	34	(4)		

[독서 이론]

[1 ~ 3] <출전> 모티머 J. 애들러 외, 「독서의 기술」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짐작하며 읽는 방식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독자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독자는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독자는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독자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⑨에서는 옛날에 이름이 없어 고증할 수 없는 것임에 태반이라고 하였을 뿐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⑦에서는 저자가 어족의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물다는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⑮에서는 저자가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어족의 이름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⑯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⑰에서는 저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서 독자는 저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서 학생들이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다.

[인문]

[4 ~ 9] <출전> (가) 오석원, 「유가의 상도와 권도에 관한 연구」, (나)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권도’라는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 맹자의 견해를, (나)는 ‘주화론’이라는 대외 정책에 대한 정치가 최명길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가)의 4문단에서 맹자의 관점에서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도가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인(仁), 의(義), 예(禮)와 같은’ 것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5문단에서 맹자가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4문단에서 상도와 권도가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도와 권도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보기>의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를 통해 칸트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의 3문단의 맹자의 말에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도가 아닌 권도를 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맹자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나)의 2문단에서 경연왕이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호안국이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속죄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요나라가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국력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적대하여 결과적으로 후진을 망하게 한 경연왕의 행위를 비판한 것임으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나)에서 최명길이 대명의리를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나라의 보존을 위해 청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 것은 권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명길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청과의 화의, 즉 권도를 행한 것에 대해 합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가)의 3문단에서 권도는 그 합당성을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최명길의 논의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문단에서 상도가 도덕규범에서의 원칙론, 권도가 도덕규범에서의 상황론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하였으므로 상도로 볼 수 있는데, 척화론자들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대명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황론인 권도보다 원칙론인 상도를 강조한 것임으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상도는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하였는데, (나)에서 척화론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의리는 상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규법이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최명길이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한 것은 대명의리를 상도로 인정한 것이고, 최명길이 그럼에도 청과 화친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본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권도를 행한 것의 합당성을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최명길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권도라 할 수 있는데, 나라의 보전을 위해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도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문책’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캐묻고 꾸짖음.’이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은 ‘자책’의 사전적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사회]

[10 ~ 13] <출전> 송교직, 「재무관리의 이해」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비유동자산’은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임을 밝혔지만, 기업이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영업고정비’는 ‘시설 확장’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시설 투자가 영업비 중 영업고정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영업비와 재무비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영업레버리지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생산 규모의 확대’로 단위생산원가가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에는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고,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1문단에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게 되면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 때’에는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고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고 하였다. 이는 영업고정비의 증가가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매출액 변동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동 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 것임으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1문단에서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영업고정비’는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반대로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고정비가 감소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하였고, 2문단의 밑에 있는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감소하면 영업레버리지도 역시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업이 영업위험의 감소를 위해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레버리지도가 감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소모품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위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시설 확장을 하면 영업고정비가 증가한다고 하

였고, 4문단을 보면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서 영업레버리지도는 기업의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영업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2문단의 밑에 있는 수식을 통해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이 같으면 영업레버리지도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 기업의 판매량이 100만 개일 때, A 생산 방식과 B 생산 방식의 영업이익은 둘 다 10억 원이다.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해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의 영업이익은 변함이 없으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고정비가 없으므로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공헌이익이 30억 원, 영업이익이 10억 원이 되어 영업레버리지도는 3이 된다. 따라서 판매량이 10% 증가할 때 매출액도 10% 증가하고 이 때 영업이익은 30% 증가하므로 적절하다. ④ ○○ 기업이 올해의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아져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A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고정비가 없으므로, 영업비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인 영업변동비만으로 구성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과학]

[14 ~ 17] <출전> 바바라 런던 외, 「사진」

1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상이 맷히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맷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대비 검출 방식은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뷔파인더로 보내져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1문단에서 ‘자동 초점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자동 초점’이 적절하다. 2문단에서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위상차 검출 방식은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하였다. 이에 대비 검출 방식보다 위상차 검출 방식의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대비 검출’,

④는 ‘위상차 검출’, ④는 ‘빠르기’가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의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을 통해 위상차 기준값은 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서 촬영 렌즈를 이동해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이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점이 맞지 않은 (가)의 경우는 X_1 을 위상차 기준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움직이면 되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빛들이 ‘각각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경우에는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가)의 경우는 X_1 이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한 (가)의 경우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빛들이 ‘각각 AF 센서의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경우에는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의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나)의 경우는 X_2 를 줄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④는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서 지나가다.’를 의미하므로, ③의 ‘통해’와 문맥상의 의미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① 문맥상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 연계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맥상 ‘말이나 문장 따위의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문맥상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문맥상 ‘어떤 관계를 맺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 고전수필]

[18 ~ 22] <출전> 신석정, 「역사」

문태준, 「빈집의 약속」

김석주, 「의훈」

18. [출제의도] 시장 전개 방식의 특징

(가)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의 반복을 통해, (나)는 ‘어떤 때는’의 반복을 통해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A]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마음’은 ‘달래꽃’이 ‘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달래꽃’은 화자로 하여금 민중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서,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달래꽃’이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에 강인한 생명력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B]에서 ‘달래꽃’은

‘긴긴 역사’와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에서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C]에서 ‘달래꽃’이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및 의미 이해

(가)의 1연에서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난다고 하였고, (나)의 2연에서 ‘마음’은 ‘빈집이어서’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

④은 도덕과 인의를 지켜 ‘양비’가 ‘온전해지면’ 몸이 살찌는 것을 ‘부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⑦에서 ‘나’가 ‘살찌기를 구’하다가 ‘양비마저 잊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⑨에서 ‘화려한 거처’, ‘사치스러운 음식’, ‘즐거운 음악’,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은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며 ‘양비란 것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⑩에서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은 ‘초나라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금은 보화’와 맞바꾼 것을 의미하며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금은 보화’는 몸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다. ④ ⑪에서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렸다고 하여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다)에서 ‘형산의 옥’은 마음을 살찌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세속적 가치와의 유사성을 활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연에서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수의’는 심적인 억압을 웃에 벗어나 나타냈으며, ‘훌훌 벗고 싶’다고 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형상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연에서 ‘예쁘디 예쁜 손’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1연에서 ‘마음’에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별이 보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연에서 ‘고요’를 ‘둥그런’이라는 시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대상처럼 드러내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23 ~ 26] <출전> 홍계영, 「희설」

강복중, 「수월정청홍가」

23.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눈이 운 경치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맹영이 잇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신선과 같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의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에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 군부를 떠올리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천지만물 중’에 ‘네 홀노’ 다른 ‘가마괴’를 보고 ‘소의 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스라’라는 권고의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백구’들은 화자에게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

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눈이 온 경치를 보고 ‘옥룡’을 떠올리며 아픔을 초극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율령천’에서의 생활을 언급하고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라고 하며 강호에서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자연이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는 ‘현창’을 열어 설경을 바라보며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화자는 ‘율령천’에서 ‘아침밥’을 먹고 ‘긴 조오름 내’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에서 화자는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통해 감흥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긴 감소’에서 ‘낚대’를 들고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화자는 ‘대산 상상봉’에 올라 ‘위군부애정’을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A]의 ‘만가 천향’에 ‘낭자’한 ‘경요’를 ‘습유를 아니 하니’라고 하였으므로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내 집도 찬란하니’에서 화자의 집이 눈으로 덮여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집마다 경실이오’에서 집들이,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네’에서 마을의 거리가 모두 눈으로 덮여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말발의 은잔은 개개히 두렵하니’에서 눈이 쌓인 길 위에 말발굽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에서 화자가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27 ~ 30] <출전> 최인호, 「견습 환자」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간호원들은 ~ 부산스레 헤매고’, ‘의사들’은 ‘기민’하게 ‘충계를 오르내’린다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병원의 분주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우두머리 의사가 ‘오전 아홉 시’경에 ‘나’에게 ‘오늘 퇴원이시죠?’라고 한 것은 퇴원을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는 ‘언젠가’ ‘누구라도 ~ 못 배길’ ‘매혹적인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본 적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그날 밤’에 ‘피로’를 느끼도록 병동을 오가며 문패를 바꾸는 자신만의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

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으로 적절하다.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언제나 그려하듯’ ‘잰걸음으로 ~ 뛰어다니고 있었’으로 적절하다.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에게 ‘어젯밤 뭐 ~ 없는지요?’라고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나’는 ‘견고한 미로 ~ 삽입해 보자고 생각’하며 젊은 인턴을 미로 속에 빼진 쥐처럼 생각하고 있고, 쥐는 ‘새로운 방황’을 통해 ‘반복으로 터득한 ~ 포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젊은 인턴이 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나’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이 ‘해산일을 앞둔’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은 치료의 대상인 환자가 치료의 주체인 의사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가 ‘문폐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 지게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가 ‘미소를 결여’한 의사들을 보고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한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가 떠올린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기계적인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가 ‘사육된’ ‘고등 동물’에 의해 ‘문폐’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31 ~ 34] <출전> 작자 미상, 「이태경전」

3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부인은 좋은 약을 ~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와 ‘어느 노비가 있어서 ~ 염려해 주겠는가.’에서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집안을 뒤져 보면 두 흡 양식이 있을 것이’고 ‘자학동 오흥 대감 택을 찾아가면’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있어, 꿈을 꾼 주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진사’는 ‘초종례’를 치를 돈을 구하기 위해 상대인 ‘대감’에게 자신의 신분을 ‘구대 진사 댁 비복’이라 거짓을 말하고 있고, [B]에서 ‘대감’은 상대인 ‘전하’의 ‘경의 말을’ ‘전혀 모르겠’다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태경이 금년의 ~ 몇 달 부렸사옵니다’와 같이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거짓 칭탈’을 하는 이유를 묻는 임금에게 ‘대감’이 ‘신이 어두워 ~ 바르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신하가 군왕에 대한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진사’가 ‘일신을 팔아’야 ‘초종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궁핍한 상황이라는 것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에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심씨’가 ‘전라 감사의 귀한 예식’임에도 ‘방비’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신의 신분과 다른 신분이 되려 했던 경우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심씨’가 ‘부창부수’를 근거로 하며 ‘가장’인 ‘진사’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서 있는 것을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대감’이 자신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기며 ‘국법’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에서, 유교적 신분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⑤	37	⑤	38	③	39	③
40	②	41	④	42	②	43	①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밀하기 방식 파악하기

3문단의 ‘예를 들어 국가지점번호 ~ 떨어진 위치를 나타냅니다.’에서 국가지점번호가 의미하는 바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4문단의 ‘질문하신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의 ~ 꾸준히 설치되고 있습니다.’에서 도표를 제시하여 2017년부터 꾸준히 설치되고 있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의 설치 현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 간 설치 현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발표 시작 부분인 ‘먼저 영상을 보시죠 ~ 구조대에 알리고 있습니다.’에서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조난 상황을 가정하여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활용하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그럼 국가지점번호는 ~ 숫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에서 국가지점번호 실제 표지판을 보여 주며 국가지점번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원리는 ~ 네 자리의 숫자로 표시합니다.’에서 국토를 격자로 나누어 구획한 지도의 사진을 보여 주며 국가지점번호가 최서남단을 기준으로 국토를 격자형으로 나누어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물론 국가지점번호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 바로 국가지점번호인 것이지요.’에서 인터넷 검색 자료를 통해 국가지점번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각 기관에서 쓰였던 실제 위치 표시 표지판들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 2>의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에서 ‘라아’는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00km ~ 400km 사이, 북쪽으로 700km ~ 800km 사이의 구역이고, ‘8485 1333’은 해당 구역의 시작점에서 동쪽으로 84.85km, 북쪽으로 13.33km 떨어진 위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료 2>의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384.85km, 북쪽으로 713.3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을 기준점으로 하여 기준점에서부터 각각 동쪽과 북쪽으로 100km 간격마다 가나다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료 1>에서 ‘가가’에 해당하는 구역에 국가지점번호의 기준점이 위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국가지점번호는 국토를 가로와 세로 각각 100km 간격으로 격자를 나눈다고 하였다. ③ 구역의 시작점은 ④ 구역의 시작점에서 서쪽으로 세 칸 떨어져 있으므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을 기준점으로 하여 기준점에서부터 각각 동쪽과 북쪽으로 100km 간격마다 가나다순으로 한글 문자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④ 구역이 ‘마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은 산이나 바다처럼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사회자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은 구분하여 정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먼저 지난 설문 조

사 결과를 보면서 ~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고 말하며 회의 순서를 안내하고 논의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라고 말하며 회의 참여자의 발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마지막 발화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 전의문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라고 회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 회의에서 학습플래너 사용률과 관련해 ~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라고 지난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며 오늘 진행할 회의 주제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B]의 ‘학생 3’은 ‘학생 2’의 ‘오늘 회의 내용을 ~ 제출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그렇게 하자.’라며 수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달리 [A]의 ‘학생 2’는 ‘학생 3’의 ‘우리 학교 학생 중 ~ 경험담을 소개하는 활동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라고 수용하며, ‘경험담을 소개하면 ~ 알릴 수 있을 것 같네.’라고 학습플래너 사용 경험담을 소개하는 것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회의에 언급되었던, 작은 크기의 학습플래너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글에 밝히겠다는 계획은 (나)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학교의 예산이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6문단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 학교의 예산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글에 언급하여 학습플래너 사용률이 낮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학습플래너 경험담 소개 행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경험담을 소개하는 행사의 시기를 3문단에서 ‘학기 초와 학기 말’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습플래너 속지에 대한 설문 조사 내용을 4문단에서 ‘독서 감상이나 학교 행사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속지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용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학습플래너 기획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5문단에서 ‘학습플래너 제작에 기획단이 참여한다면 ~ 학생 차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학습플래너 기획단 구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전의문 이해하기

(나)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의 구체적인 근거로 또래 친구들의 학습플래너 제작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예상 독자인 선생님과 글의 형식인 전의문을 고려하여 1문단에서 ‘안녕하세요 ~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글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1문단에서 ‘학습플래너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24% 정도’라는 설문 조사 통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문제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4문단에서 ‘실제로 인근 학교에서도 ~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해결 방안이 실현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 6문단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 교육적 목적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고쳐쓰기

조언을 수용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이 사용된’으로 고쳐 쓰면 주어인 ‘노력’과 서술어인 ‘사용된’의 호응 관계가 어색해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작다’는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않다.’라는 뜻이고, ‘적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은’으로 고치자는 조언은 적절하다. ③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고,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 작성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와 ‘우리 학교 학습플래너가 ~ 학생들도 많았습니다.’가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그리고’로 고치자는 조언은 적절하다. ④ 서술어 ‘제작하다’가 요구하는 필수 문장 성분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학습플래너를’을 추가하자는 조언은 적절하다. ⑤ ④은 ‘우리 학교 학습플래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의’라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삭제하자는 조언은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이 글은 우리 학교의 수목 관리 실태를 주제로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형식에 따라 ‘I. 조사 동기 및 목적’부터 ‘IV. 결론’까지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IV. 결론’에서는 우리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I.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 ‘학교에서 나무는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음과 미세 먼지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I. 조사 동기 및 목적’에서 우리 학교 수목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수목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III. 조사 결과 - 1.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서 동아리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III. 조사 결과 - 2. 개선 방안’에서 ‘현장 조사 자료와 관련 연구 자료를 종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2]에서 부적합한 곳에 심어진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는 이유와 옮겨 심은 후 나무의 적절한 생장을 위해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고, [자료 3]에서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나무 옮겨심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 모두,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⑦]에서 설문 조사 결과로 ‘그렇지 않다’ 38.7%, ‘매우 그렇지 않다’ 24.4%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료 1-⑪]에서 차광률이 높을수록 무궁화 개화 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 2]에서 나무에 햇빛이 부족할 경우 가지가 연약하게 자라거나 꽃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그늘에 심은 무궁화의 생장 상태가 불량한 원인이 부족한 햇빛 때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2]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하여 나무가 세균에 감염되어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지나친 가지치

기가 나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3]에서 ‘나무 돌보미’ 캠페인의 활동 내용과 참여 학생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5)	36	(2)	37	(4)	38	(4)	39	(3)
40	(4)	41	(5)	42	(2)	43	(1)	44	(4)
45	(4)								

35.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이해하기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부리-’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들어’의 발음은 [드러]로,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어간을 ‘더우-’와 ‘덥-’의 두 가지 형태로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여름’과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끌이’를 ‘끄치’로 적지 않고 ‘끌’이라는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표기한 것은 의미 파악을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은 것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파악하기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코]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닳-’이라면 [달코]와 [달치만]을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④와 ⑥는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 이므로 ⑩에 해당하는 예이다.

38. [출제의도] 문장 구조 파악하기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從(종) 乎 습디’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부태’에서 ‘부터’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너르샤도’에서 두 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려보며’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인 ‘봉’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르믹’에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정보의 전달 방식 이해하기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지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에 해당하는 (나)의 전문가의 말 중 ‘연구자의 입장에서 ~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와 ‘시의 입장에서도 ~ 충족 시킬 수 있기 때문에’에서 전문가가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 9.2점이더군요.’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에 해당하는 (나)의 진행자의 말 중 ‘마지막으로 다음 ~ 소개해 주세요.’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수용자의 수용 태도 분석하기

‘청취자 2’는 ‘공원에 갈 때 ~ 편리할 것 같아요.’에서

방송에서 제시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고, ‘청취자 3’은 ‘자율 주행 버스가 ~ 도움이 되겠네요.’에서 자율 주행 버스에 관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⑤에서 ‘운영된’의 피동 접사 ‘-되다’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⑦에서 ‘작년부터’의 보조사 ‘부터’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⑨에서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의 격조사 ‘에’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의 의존 명사 ‘만큼’은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⑪에서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의 보조사 ‘도’는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에 따른 정보 전달 양상 이해하기

(나)에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의 자막에 요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의 노선도에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 언급된 시청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의 화면에 전문가의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의 실시간 채팅창에 메시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 언급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의 지난 방송 다시 보기에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표현 방식 분석하기

(가)에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구성 추론하기

(가)의 2문단 ‘인근 학교의 ~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에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 ‘4’의 ‘화면 구성’에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 ‘실내 적정 ~ 전등 끄기’에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나) ‘2’의 ‘화면 구성’에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 ‘이후 변화의 ~ 기후 행동입니다.’에 기후 행동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나) ‘1’의 ‘화면 구성’에 기후 위기를 보여 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 ‘꾸준히 실천하고 ~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에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 ‘무엇보다 기후 행동은 ~ 가장 중요합니다.’에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나) ‘3’의 ‘화면 구성’에 자신의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